

브랜드 인지도 제고...문화관광 중심지 도약

긴급점검 무등산 중심사지구 <중> 어떻게 추진되나

서비스·역량 강화·ESG 경영 등
올까지 2억7천만 투입 개선 추진
쇼핑 환경 개선·안전한 상가 구축

광주시와 동구가 중심사지구 상권을 ‘무등산 관문’에 걸맞게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상가로 조성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3대 서비스 개선과 2대 역량강화, ESG 경영 사업을 통해 상권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19일 무등산상가거리 육성사업단에 따르면 ‘중심사거리 특성과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예산 2억7,000만원(국비 1억6,200만원, 시비 5,400만원, 구비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구 윤림동 무등산상가거리에 오는 12월 까지 진행한다.

3대 서비스 개선(▲편리한 지불결제 ▲고객 신뢰 ▲위생)과 2대 역량강화(▲상인조직 ▲안전관리) 사업인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무등

산 상가거리 상점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통한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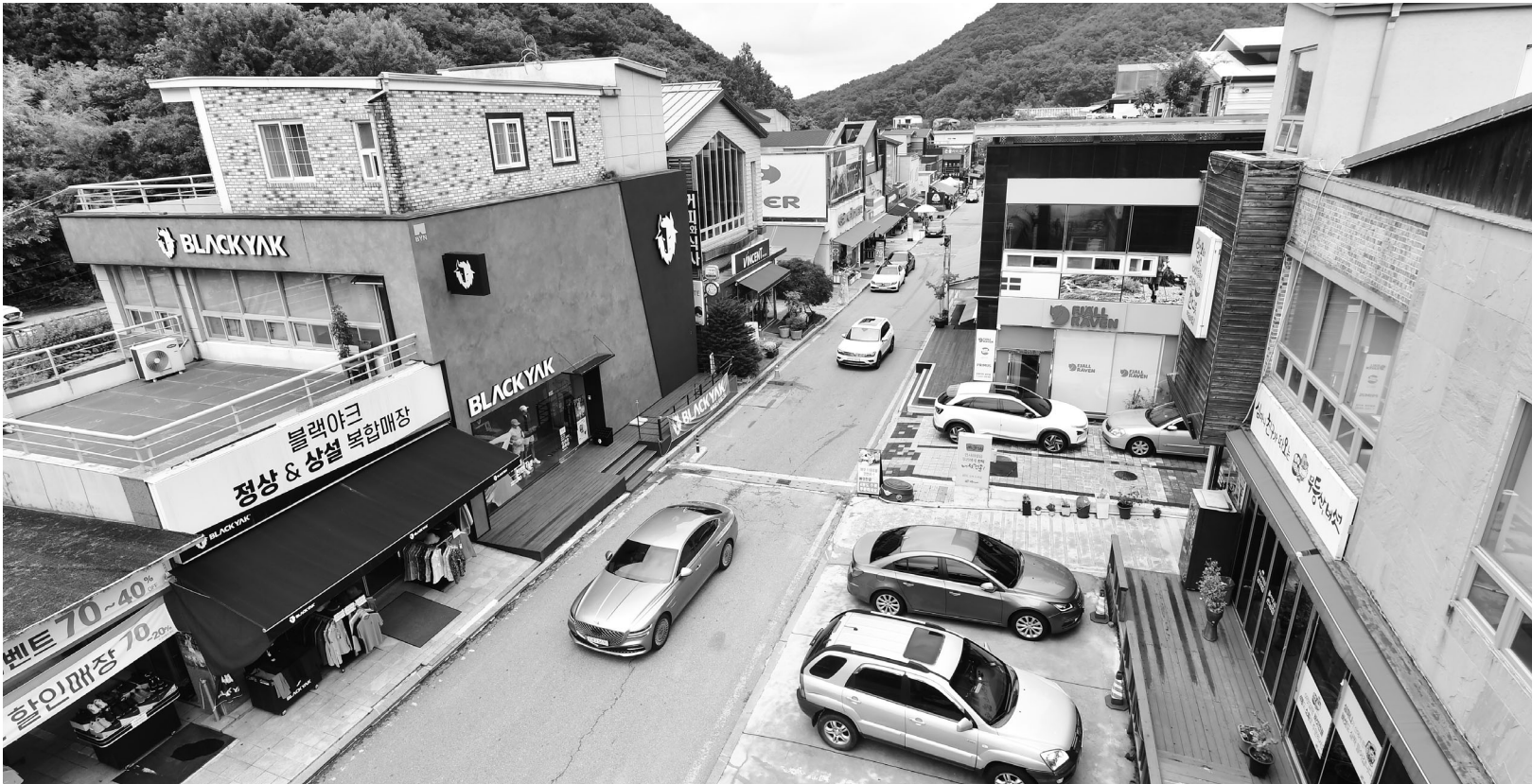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상가거리 방문객들을 위한 편리한 지불결제를 활성화하고 상점가 고객실명제를 정착시켜 방문객들에게 신뢰를 높이기로 했으며, 매월 정기적인 클린데이를 운영해 청결한 상가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상인주도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해 상인들의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안전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자율소방대 등을 구성해 안전한 상가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ESG를 통한 상인, 지역민, 관광객들과 무등산 환경 개선을 통한 가치공유 창출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무등산 상가거리 육성사업단은 우선 5대 핵심과제중 한가지인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가입률을 100% 달성했다.

무등산상가거리 육성사업단이 지난 5월 상품권 가입 현황 조사를 통해 43곳의 상점중 지류상품권 가입은 32곳(72%), 모바일상품권 10곳(23%), 전자온누리 6곳(13%), 제로페이 14곳(30%)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는 모두 43곳이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100% 가입률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윤림동 중심사지구 상가 거리가 한산하다.

/김생훈 기자

을 만들었다.

이달에는 상가 위생 및 청결을 위해 상인들로 구성되는 자율소방방역대가 조직돼 정기적으로 방역, 청소를 진행하고, 모든 상가건물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 및 제세동기, 구급상자 구비 등 상가 쇼핑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사업단은 오는 12월까지 상인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눈높이 상인역량교육, 상인동아리 운영, 안전과리 및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무등산 환경보호와 ‘무등산 쓰담쓰담 산행 캠페인’을 기획,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점가로 변화를 꾀

할 계획이다.

무등산상가거리 상점가 김동훈 상인회장은 “이번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된 무등산상가거리 상점가를 살리고 싶다”며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상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전남 농민단체들,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정부에게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값을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쌀값은 왜곡된 시장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며 “현재 쌀값은 작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도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지적

했다.

단체들은 “수입쌀 40만톤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세계적 공급망이 불안정한 식량 위기 시대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정부는 제1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환경단체 “하천관리 업무 이원화 반대”

“통합물관리 정책 훼손”

하천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는 광주시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19일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강기정 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한시 기구인 신활력추진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하천 관리 일원화를 위해 만들어놓은 기존의 물순환정책과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직개편안대로라면 수질관리는 환경생태국으로, 수량관리는 신활력추진

본부로 이원화된다는 “하천 관리는 2년짜리 한시적 조직에 불과하다 떠났다 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며, 이원화된 하천 관리는 수질의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율러 “4대강 중영산간은 최악의 수질을 보인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간 노력의 산물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방학 중 무상급식 “도시락 단가만 올려”

작년 겨울방학 대비 2천원 상승

“위탁업체 담합 여부 점검해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2호 공약인 ‘방학 중 무상급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중단되면서 오히려 도시락 업체의 몸값만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방학 중 급식 중단’ 이후 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000~6,000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000~7,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초교의 경우 지난해 겨울방학 중식 도시락 비용은 4,800원이었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1,200원 오른 6,000원으로 올랐다.

B초교도 5,200원에서 6,000원으로 800원 인상됐고, C초교는 4,200원에서 6,500원으로 2,300원 올랐다.

D초교는 7,000원에 도시락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서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교육감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500원)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경증 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위탁급식 비용과 더불어 도시락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담합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시행해야 하고, 향후 차질 없이 방학 급식이 추진되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한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전남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시외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시외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시외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